

신문론 사람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03

2016 + March
Vol. 189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봄을 향한 힘찬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모범교사로 선정된 문명진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가슴속 사랑을 키웁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명진 선생님의 하루는 아이들과의 포옹으로 시작됩니다.
웃으며 안기는 아이들을 안아줄 때면 가슴이 파스해진다는 문명진 선생님.
아동학대 기사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미소를 지어보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과 함께 가슴속 사랑을 키워나가는
문명진 선생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
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
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
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
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트위터 twitter.com/pac_news

Contents

2016 March Vol.189

04 인터뷰

정규성 / 한국기자협회 제45대 회장

06 언론중재법 NOW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07 미디어트렌드

빅데이터 시대의 저널리즘을 얘기하다

08 문화토픽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09 세상읽기

품격 있는 죽음

10 인증노트

팩션 드라마와 정정보도 청구

11 언론법 이모저모

사전 동의

12 여행수첩

고도에서 찾은 희망의 근거, 가족과의 그리스 여행

14 위원회NEWS

15 조정중재 사례 / 『4건론』 100자평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3월 2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증,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한라에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취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튼튼한 저널리즘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성 회장은 대구일보 지회장, 대구경북기자협회장 등을 지냈으며, 2012년부터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2014년부터 수석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이번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투표자의 84.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Q. 제45대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간략한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 중점을 두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전국 1만여 기자협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날 언론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기자들의 위상 또한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취재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튼튼한 저널리즘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취임 후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소송, 해직기자 사태 등 특별위원회도 강화했습니다. 당면한 현안은 무엇이며 각 언론사 기자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A. 기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취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공공성 복원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기자협회 산하에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언론소송대책특별위원회, 해직기자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당면한 현

안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언론자유특위는 조사 소위, 대외협력관계 소위, 저널리즘강화 소위, 기자포럼 소위 등 4개의 소위를 두고 있는데 이미 한 차례 회의를 통해 대전일보 기자 해고 사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기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여하한 일들에 관해 사례를 모으고 특위 또는 협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언론소송대책특위와 해직기자대책특위도 조만간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찾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기자협회가 늘 회원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Q. 회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론직필(正論直筆)은 기자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도(道)입니다. 바르게 논하고 본대로 써야 합니다. 기자의 일은 곧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며, 이는 곧 사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펜을 권력 삼

아 휘두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역사를 그릇되게 기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 호랑이처럼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Q. 지역 언론사에 몸담고 계시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통합 저널리즘 구현'이라는 선거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등 통합 저널리즘의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으신지요?

A. 제45대 기자협회 집행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통합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수와 진보,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조화와 균형의 집행부가 갖춰졌습니다. 보수와 진보, 중앙과 지역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통합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경에 속한 기자들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가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Q.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이 위기에 대응하고 저널리즘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기자들의 근무 여건은 물론, 언론 지형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속보 경쟁과 상업주의 등으로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언론 현실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르고 공명정대한 언론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새기고 저널리스트의 임무를 묵묵히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미디어가 다양해져도 품격 있는 저널리즘은 흉내 낼 수 없으며, '대체재'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여전히 각종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뛰며 사실을 좇고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기자 사회 전반에 본보기가 되어 저널리즘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자협회도 그런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재보도를 할 때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자협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A. 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자살보도 윤리강령 및 권고기준을 마련해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에서 최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한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훌륭한 가이드라인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자협회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수습기자 교육 단계부터 일선 취재기자과 데스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에 이르기까지 보도준칙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현장에서 실천·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총선보도준칙을 이미 제정하여 기자협회보를 통해 곧 공표할 예정이며, 후보자가 확정되는 대로 기자 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교육과 연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자협회에선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존중의 정신에 근거해 각종 보도준칙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 보도 일선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나 기자협회가 나서서 기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기자협회는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나 이론과 실재가 괴리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개최해 신중한 언론 보도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작업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건전한 여론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언론은 사회의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규범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언론은 민주적 여론 형성이냐 다양한 토론의 장(場) 역할을 하기보다 갈등을 조장하고 중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통합의 제1조건은 소통입니다. 언론은 기꺼이 소통의 장이 되어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 공론장이라는 사회과학적 정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 이진숙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최은진 홍보팀 차장보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인터넷과 SNS가 뉴스 읽기의 주요 플랫폼으로 정착한 지 오래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잘못된 원 보도의 교정만으로는 온전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는 원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져도 해당 내용이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포털에서 지속적으로 검색되며, 부정적 댓글 등이 남아있는 한 실질적 피해구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하소연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접할 때마다 난감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현행 언론중재법상 이와 같은 피해는 우리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러한 한계를 확인하고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인터넷 등에서 대량 소비되는 기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사안이 독자나 시청자의 부정적 감정을 자극한다. 둘째, 사안을 둘러싼 당사자가 존재하고 둘 사이 대립이 심하며, 언론은 일방의 주장만을 대폭 반영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셋째,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모호하며 그 내용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넷째, 보도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다. 즉, 특정 이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경우 그러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내용을 무리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조정사례 하나

신청인은 인터넷 피팅 모델로 활동하는 젊은 여성이다. 신청인은 강남 소재 한 음식점에서 서비스와 관련해 종업원과 다투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음식점 위치와 상호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올렸다. 그러나 모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을 갑질하는 진상 손님으로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신청인은 네티즌들의 비아냥과 모멸적 댓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는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던 시기였다.

모 언론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과 당사자 일방인 음식점의 입장을 중심(신청인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함)으로 신청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때문에 해당 음식점이 폐업했다며 신청인을 블랙컨슈머의 한 사례로 보도했다. 이후 인터넷 등에서 신청인은 '○○녀'로 회자됐고, 신청인 주소지 등의 신상이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되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신청인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지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수년간 키워온 사업을 정리해야만 했다. 신청인은 조정을 통해

"본인은 갑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블랙컨슈머가 아니다."라는 반론을 보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인터넷 등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보도 등에 대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크게 낙담하며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며 분노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털에서 '○○녀'라는 검색어를 치면 신청인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서운 것은 위 사례의 신청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 글을 쓰는 나와 읽는 독자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한 순간에 오랜 기간 공들여 쌓은 tap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피해자들의 분노와 눈물을 접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내가 이런 상황에 부딪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번 안 좋은 내용이 인터넷에 퍼지면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비난과 욕설부터 퍼붓는 디지털 언론환경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보다 좋은 제도는 없을까? 설불리 피해구제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건 아닐까?' 등의 생각이 머릿속을 방황한다.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제도 마련 시급

요즘처럼 미디어 환경이 복잡하고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 신청인들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만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상을 알고 나서는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오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언론사 또한 당황한다. 답답한 건 언론피해구제의 최일선에 서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약간의 제도보완만 이루어지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서 문의하시고, 저 부분은 어디에 요청하세요'라는 안내는 마음이 급한 피해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까? 매일 같이 피해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담당자로서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빅데이터 시대의 저널리즘을 얘기하다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가 화두다. 2011년 맥킨지는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라는 보고서에서, 또한 2012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Big Data Big Impact"라는 제하의 슬로건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진단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4의 물결로 칭했다. 세계적인 IT 컨설팅사인 가트너는 향후 미래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지목해왔다.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과 정부기관 및 기업에서의 적극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오라클, IBM,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경영전략 중심에 빅데이터가 있다.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매순간 생산해야 하는 언론사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더욱 두드러진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연합뉴스와 같은 국내외 전통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버즈피드Buzzfeed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중심에 빅데이터가 있다. 그럼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정의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그리고 데이터의 입출력 및 분석속도(Velocity)를 강조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Value)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4Vs). 필자는 대학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하며 인문학/사회과학적 맥락에서 빅데이터를 강의하고 있는데, 매우 제한적인 지면을 고려해서, 빅데이터가 저널리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뉴스 생산과 전달 그리고 소비과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뉴스 생산과정에서의 개방성의 확장과 데이터의 통합적 접근이다. 전통 저널리즘의 뉴스 생산은 정형화된 스톱 데이터에 많이 의존했다. 기자는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물론 자료접근의 어려움이거나 정보 신뢰성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자료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매우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글은 매우 좋은 추가 자료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소셜분석을 통해 뉴스 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제는 사람들도 단순한 뉴스보도에 더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양한 데이터 속에서 정교한 분석을 통

해 매우 흥미로운 가치를 찾아낸 결과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나 언론사에게 빅데이터는 분명 시대적 요구인 듯하다.

다음으로, 뉴스 전달과정에서의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의 활용이다. 영국의 가디언이나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된 새로운 유형의 뉴스를 매우 보기 좋은 이미지나 그래픽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뉴스를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의 전환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긴 문장의 기사를 읽기를 싫어한다. 또한 정보의 홍수시대가 뉴스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가 쉽지 않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한 장의 완성도 높은 그래픽 이미지는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뉴스 가치가 높다. 최근 국내에서 '카드 뉴스'가 매우 많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전통 저널리즘과 차별화되는 빅데이터 저널리즘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뉴스 소비는 모바일을 통한 포털 콘텐츠 이용이 대세다. 종이신문이나 텔레비전 본 방송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 포털 뉴스를 읽거나, 무료 방송 VOD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편리한 시간에 재생해서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신문 구독률이나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뉴스를 포함한 콘텐츠 소비의 정확한 평가는 뉴스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다양한 소비지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울새가 동지를 틀 때 돌아온다고 말한 남편

—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

여기 울새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한 여자가 있다. 남편이 떠나면서 울새가 동지를 틀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는 집에 찾아온 남편의 친구에게 묻는다. “미국의 울새는 얼마 만에 동지를 트나요? 일본의 울새는 벌써 세 번이나 동지를 틀었는데...” 일본 나가사키에서 미국인 남편을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부인의 이름은 초초(蝶蝶)다. 이름에 나비 접(蝶)자를 두 번이나 쓴 이 여인을 우리는 나비부인이라고 부른다.

초초상은 화려한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해군 중위 핑커톤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신부의 등장을 기다리는 오페라의 시작에서 이미 핑커톤은 초초상과의 이 결혼은 일시적인 재미를 위한 것이며 정식 결혼은 미국 여성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여주인공이 아직 등장하기도 전에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이 예고되는 것이다.

이 오페라의 원작은 원래 미국 작가 루터 롱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 ‘나비부인’이었다. 이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하고 연출까지 맡은 벨라스코의 작품을 런던에서 감상한 푸치니는 대번에 그에게 ‘나비부인’을 오페라로 만드는 제안을 한다. 영어로 된 대사는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탁월한 흥행감각을 가졌던 그는 직감적으로 이 작품이 가진 이국적인 매력과 오페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감지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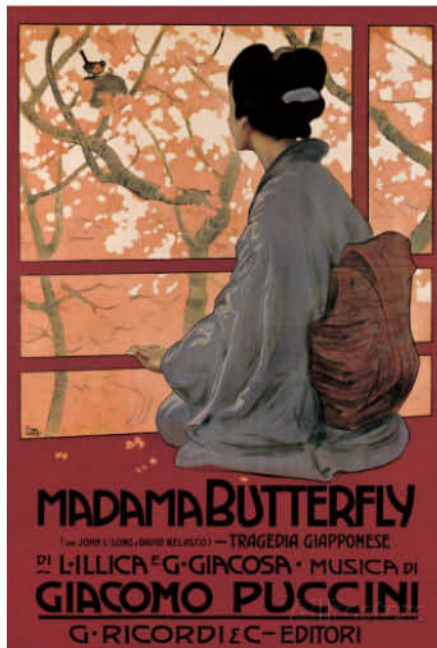
푸치니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 지고지순하고 희생적인 일본 여성에게 폭 빠져들었다. 자신의 화려한 여성편력에 지쳐 의무증에 걸려버린 부인에게 시달리던 그로서는 분명 꿈속의 이상적인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나비부인의 환상과 함께하며 오페라 작곡에 특별한 애착을 기울였고 작품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초연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절치부심 끝에 수정해서 다시 올린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며 푸치니

오페라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남았는데 오늘날 아시아 사람의 시각으로 마냥 편하게 볼 수만은 없는 작품이다.

남성과 여성, 서양과 동양에 대한 이분법적 이미지를 고착화한 작품이고 유약하고 희생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데 큰 역할을 한 오페

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 ‘미스사이공’은 이 오페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고 서구 남성과 아시아 여성의 일그러진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를 만든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나비부인’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극적인 구성과 그것을 표현한 음악이 갖는 아름다움에 있다. 단 2막으로 이뤄진 이 오페라에서 1막의 초초상은 15살의 수줍은 새 신부이고 2막의 초초상은 3년이란 시간이 지난 18살의 아이 엄마다. 푸치니는 음악을 통해 한 여성이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원래 나비부인은 거의 공연 내내 무대를 지켜야 하고, 순진한 소녀와 강한 의지를 갖춘 여인의 음색을 동시에 노래해야 하므로 소프라노의 가장 어려운 배역 중 하나로 꼽힌다. 나비부인이 노래하는 아리아 ‘어떤 갯 날’은 꿈꾸



듯 시작해서 피를 토하는 절규로 끝을 맺는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향한 외침이자 기다림에 지친 자신을 향한 다짐으로 초초상의 성숙한 변모가 뚜렷이 와 닿는 명곡이다.

드디어 남편의 배가 들어오고 꽃으로 꾸민 방에서 그를 밤새 기다리는 나비부인 뒤로 희미한 여명과 함께 들려오는 음악이 그 유명한 허밍 코러스다. 가사 한 줄 없이 허밍으로만 이뤄진 서정적이고 구슬픈 선율은 미동 없이 앉아있는 그녀를 감싸고 허망하게 공기 중으로 사그라진다. 아직은 일찍한 3월의 봄바람을 맞으며 벚꽃처럼 스러진 나비부인의 가련한 운명을 생각한다.

품격 있는 죽음

죽음이 가까이 와있는 이에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정서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 고통이 연장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원하는 것만이 사람 된 도리이고 효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주렁주렁 주삿바늘이 꽂힌 채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죽음을 맞는 게 흔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품격 있는 죽음인가 하는 회의적인 견해들이 진작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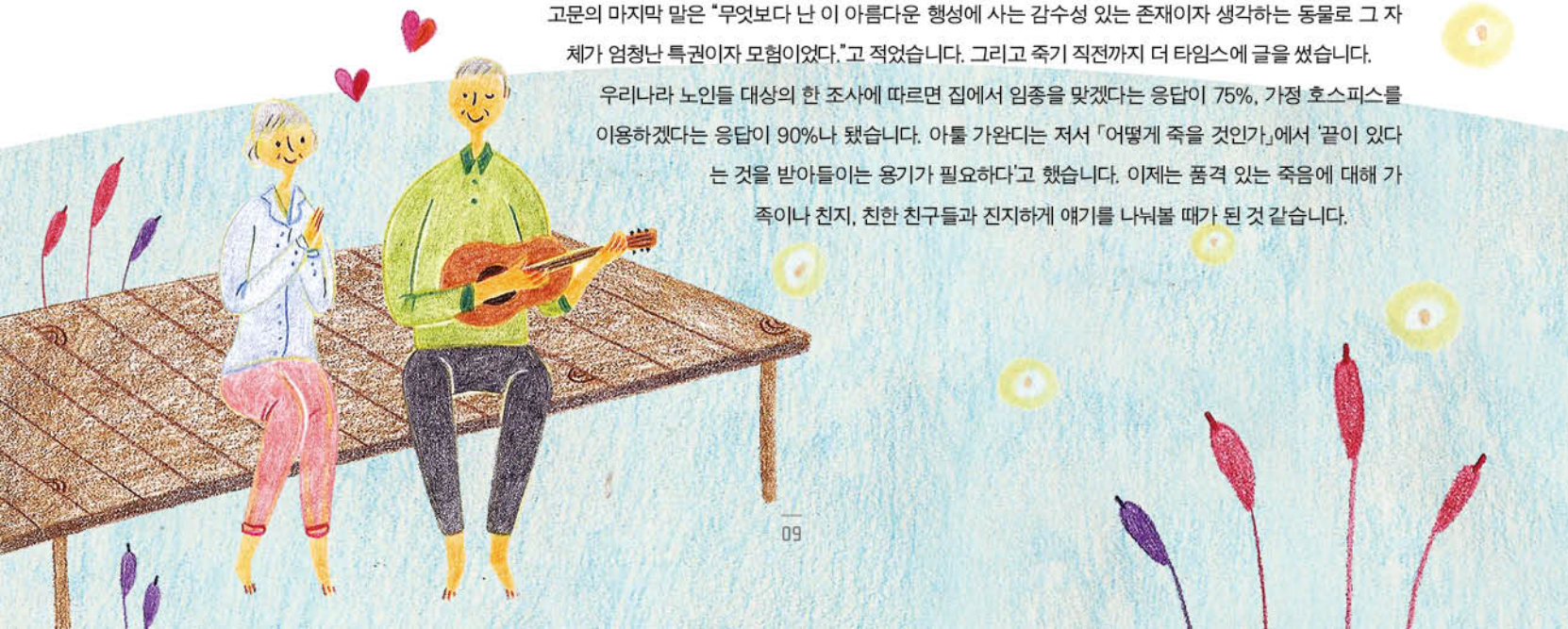
올해 초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란 긴 이름의 법이 통과됐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미리 밝혀둔 자신의 뜻(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나 가족 합의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웰다잉(well-dying)법'으로도 불리지요. 잘 먹고 잘사는 웰빙(well-being), 품위 있게 나이를 먹는 웰에이징(well-aging)에 이어 웰다잉은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는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명 의료를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이 치료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가 살인방조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삶과 죽음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경제학 박사인 스콧은 교수를 하다 노년에 헬렌과 함께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의 숲으로 생활 터전을 옮깁니다.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삶을 황폐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 스콧은 하루 4시간씩 살아가기 위한 농사(육체 활동), 책 읽거나 글 쓰는 작업(지적 활동), 이웃·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교제 활동)을 가지면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지요.

스콧은 100세가 되던 1983년 8월, 쇠잔한 육체와 다가온 죽음을 감지하고 곡기를 서서히 끊습니다. 일체의 연명적 치료나 물리적 도움을 받지 않고 아내 곁에서 평온하고 조용하게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스콧은 생전에 '주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라는 글을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마지막이 오면 나는 죽음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바란다'로 시작되는 이 '지침'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사도 약물치료도 없이, 내 작업복을 입힌 채, 아무런 치장이 없는 상자에 넣어, 이미 비용을 지불한 화장터에서 조용히 화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내 죽음으로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으며,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희망에 차서 간다'고 쓴 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헬렌 니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이들 부부의 삶과 죽음은 원칙과 존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사망한 올리버 색스 뉴욕대 의대 신경학과 교수의 임종 태도도 많은 이들로 하여금 품격 있는 죽음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암이 전이돼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뒤 2015년 2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몇 개월 살지 모르겠으나 더 풍성하고 깊고 생산적으로 살겠다"며 삶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기고문의 마지막 말은 "무엇보다 난 이 아름다운 행성에 사는 감수성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더 타임스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대상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임종을 맞겠다는 응답이 75%,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0%나 됐습니다. 아툴 가완디는 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 친한 친구들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팩션(faction) 드라마와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 즉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주관적 의견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팩션 드라마를 통해
'사실적 주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드라마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고려의 개국을 다룬 A 드라마에서는 후백제의 침입으로 국운이 저물어가는 신라 경애왕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런데 후백제의 건원이 경애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건어차는 치욕적인 장면에서 홀리내린 술을 활아 먹는 모습은 문중의 화에 기름을 부었다. 문중에서는 "기록에는 건원의 위협에 경애왕이 자결했다고만 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게 될 것이니,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A 드라마에 과연 '사실적 주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역사란 '이러저러한 사실들의 기록이지만 드라마는 창작자의 '주관'으로 탄생시킨 예술이어서,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사실적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중재부는 예술과 오락을 위한 A 드라마에는 사실적 주장이 없다고 봐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마도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 사이에 놓인 1000년 이상의 먼 시간적 틈새가 시청자에게 이 역사 드라마의 디테일한 묘사를 사실적 주장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받아들이게끔 했을 것이고, 당시의 중재부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드라마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없을까. 법원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B 드라마에 대해 정정보도 책임을 인용한 적이 있다. 일명, 수지김 사건(안기부에 의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간담(?)한 범죄가 '아내가 남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한 뒤 북한 측이 남북 시도 은폐를 위해 도리어 아내를 살해해 버린 복잡한 범죄'로 둔갑한 사건)과 관련해서였다. 10여 년이나 흘러 일의 자초지종이 밝혀졌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42억 원을 배상한 사건이었다. 이 드라마의 문제는 당시 안기부 직원이던 실존인물 C가 이 어마무시한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방영되었는데, 사실 C가 이 조작과 무관했다는 데 있었다. 법원은 정정보도를 명하는 한편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 성격을 가진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드라마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생각해보건대, 팩션 드라마가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드라마의 근본 목적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정면으로 재조명하는 것에 있는지, 실존 인물이 드라마에서 중심인물인지 배경인물인지, 또는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9.선고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 등 좀 더

다양하고 정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정말 골똘히 생각한 가상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이 여자 친구를 위해 서태지의 변기를 훔쳐온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대해 어느 날 서태지가 "나는 변기를 도난당한 적이 없다"는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어떨까. 아마도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서태지는 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허구적인 이야기가 주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오해할 일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사전 동의

“그렇게 해서는 기사 쓰기 어렵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실 확인보다 당사자 동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이든, 음성이든, 사생활이든 당사자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언론이라고 해서 특별히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의학·과학과 같은 다른 공익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뜻이다.

전에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아내가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모진 진통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출산의 순간이 다가왔다. 산모 옆에서 호흡을 돕다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분만실을 나와 밖에서 대기했다. 바로 그때, 앓던 얼굴에 의사 가운을 입은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분만실로 들어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습 나온 그 대학 의대생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병원 측의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 그 후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게 됐다. 전문의 양성, 의학 발전은 충분히 공익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환자 개인의 의사쯤은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가. 사안의 심각성은 다르지만 이러한 의문이 현실에서 제기된 예는 또 있다.

1950년대 미국의 저명한 암 연구자였던 체스터 사우샘은 살아있는 암세포를 몇 년에 걸쳐 6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입했다. 심지어, 이들 중 절반가량은 암

환자였고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간단한 암 검사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방식에 대해 사우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들이 암세포인가 아닌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대상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세포는 이질적인 것으로 곧 면역체계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별 상관도 없는데 괜히 감정적인 혼란만 일으킬 수 있는 지엽적인 내용을 환자에게 숨기는 것은 말은 바 책임을 다하는 진료 현장의 탁월한 전통이라 하겠습니다.”¹⁾

당당했던 사우샘의 말처럼 그의 연구는 암 백신 개발에 이바지함으로써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에게 유익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미하며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볼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20세기 중반의 미국에서는 개인의 의사보다는 암 연구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그 결과, 이 일로 인한 사우샘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었다.

물론, 다른 결과도 있다. 작년 11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연고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시체를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시체해부법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했다(2012헌마940).

무연고자의 시체가 의대 해부용으로 제공된 것은 수십 년도 더 된 오랜 관행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의 몸이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는데 안 될 일도 아니지 싶다. 이 사안의 핵심 역시 ‘공익이 우선인가, 당사자 의사가 우선인가?’ 이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부용 시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하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개인 의사의 중요성이다. 이것을 법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다. 사전 동의란, 단지 시간상으로 미리 동의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 그 핵심은 당사자 의사의 존중이다.

‘윤리경영’,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즘, ‘윤리적 취재’라는 말 또한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리고 윤리적 취재의 진짜 핵심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 레베카 스톨루트, ‘헬리테라 핵스의 불멸의 삶’ (2010, 문학동네), 185쪽



고도에서 찾은 희망의 근거 가족과의 그리스 여행

메테오라. 깎아지른 절벽에 세워진 중세의 수도원이 아찔한 경관을 선사한다.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풀이 죽은 사람들, 생기를 잃은 도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우리 가족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왔을 때가 꼭 그랬다. 2월 말 ~3월 초, 하늘은 쉽게 봄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중해 연안의 들판과 나무엔 새싹이 막 돋기 시작했고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릴 때는 대지에 생동감이 넘쳤지만, 날씨가 궂을 땐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봄을 느끼기 어려웠다. 우리가 그리스를 여행한 12일 가운데 절반은 구름이 끼어 봄 같지 않은 날이 많았다. 더구나 당시 그리스가 최악의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거리에서 활력을 찾기 어려웠다. 스산한 날씨가 펼쳐질 땐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우리도 지쳐 있었다. 중국과 네팔, 인도 등 아시아에 이어 야간버스를 밥 먹듯이 타면서 터키를 일주한 후여서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다. 세계를 주유하기 시작한 지 5개월을 넘기면서 여행의 매너리즘도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새로운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눈동자를 번득이는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숙소를 잡고, 관광지를 둘러보고,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관성에 이끌려가는 듯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내부에 외로움과 공허함, 향수병이 안개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여행지가 그나마 활기를 띠고, 사람들로 북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도 여행의 피로를 털어내면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호

기심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풀이 죽어 있었다. 봄이 왔지만, 그리스와 우리에게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야간버스로 약 10시간 달려 그리스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에 도착했을 때는 최악의 상태였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우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성서 테살로니가전서의 무대이기도 한 테살로니키에는 고대 동로마 문화, 마케도니아 문화의 유적들이 곳곳에 있었고, 비잔틴문화의 보물들을 전시해놓은 박물관이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흥분은 잠깐이었다. 여행의 활력과 상상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2012년 당시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을 휩쓸던 경제위기의 충격은 생각보다 깊었다. 테살로니키는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평일인데도 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았고, 곳곳에 ‘임대’ 또는 ‘매각’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골목을 돌아갈 때마다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상점들이 나타났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휘갈겨 놓은 건물들이 즐비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묻어나는 듯했다. 풀이 죽어 있었고, 생기가 없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족의 ‘희망 찾기’ 세계 일주 여행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림 같은 메테오라를 거쳐 아테네로

하지만 그렇게 자기연민에만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경제위기라 하더라도 그리스인들의 삶이 지속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여행도 계속되어야 했다. 처음 세계일주 여행을 시작했을 때처럼 도전과 모험심에 충

Greece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의 주신인 아테나를 모신 신전이자 그리스 신화의 종합판으로 지금도 복원공사가 한창이다.

만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행의 즐거움은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테살로니키를 떠나 두 번째 목적지인 메테오라로 향했다. 메테오라에서는 여행의 즐거움을 '반짝' 맛볼 수 있었지만, 아테네로 오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메테오라는 마치 땅에서 불쑥 솟아난 것 같은 거대한 바위와 그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은 수도원이 아찔한 풍광을 선사하는 곳이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테살로니키에서 잔뜩 심술을 부리던 날씨가 맑게 갠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아래로는 넓은 분지가, 아찔한 절벽 위에는 수도원들이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속세의 때를 벗어버리고 순수한 신심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중세 수도사들의 염원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아테네는 인류 문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상과 문화의 뿌리가 깃든 곳이다. 기원전 1,200년경 도시국가로 등장해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성기를 누린, 유럽 문명의 시원과 같은 곳으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다. 우리도 도착하자마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해 고대 아고라, 아폴론 신전, 제우스 신전 등 도시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유적들을 신나게 돌아다녔다. 2,000여 년의 세월을 버텨낸 돌조각들에 나름의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신화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했다.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보려면 몇 달 동안 머물며 여행해도 아쉽지 않을 고대유적의 보고였다.

하지만 아테네에도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햇살이 날 때는 사람들이 카페에도 나와 도시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날이 흐리면 상황이 바뀌었다. 조금씩 심술을 부리던 날씨가 3일째 되던 날 비로 바뀌어 구질구질해지자 거리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우리 가족도 침체에 빠졌다. 나는 물론 아내나 두 아들 모두 침대에 널브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일정을 하루 늘리고, 숙소에서 쉬어야 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루를 숙소에서 묵새긴 다음날 그리스 여행에서 의외의 '선물'을 받았다. 아테네의 중심광장인 신타그마 광장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아테네 시가지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언덕에 있어 도시 어디서나 보인다.



주장하는 작은 시위도 구경하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후학을 가르쳤던 곳에 세워진 아테네대학과 아테네학술원을 거쳐 숙소로 돌아올 때였다. 다음 여행지인 델피와 크레타 섬 여행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숙소 입구의 현지 여행사에 들렀다. 중년의 여행사 사장과 상담을 끝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왔다. 금융위기로 사업은 어렵지 않은지, 관광객들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그동안 궁급했던 질문에 여행사 사장이 말했다.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리스인들은 낙관적이에요. 언젠가 위기도 넘어갈 거예요." 테오도로 콘솔라스 사장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내가 눈동자를 크게 뜨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다. "허허허. 그리스가 위기를 겪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이것보다 더 심한 위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모두 지나가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 위기도 지나갈 거예요. 허허허."

그러면서 콘솔라스 사장은 2000년이 넘도록 아테네를 굽어보듯 버티고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가리켰다. 순간 나의 뇌리에 스파크가 일어났다. 바로 그리스의 깊은 역사에 이들이 가진 낙천성의 기원이 있는 것이었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그리스도 역사의 격랑을 거쳐 왔다. 유럽의 중심에서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했다. 언제나 자신이 속한 시대, 자신의 처지가 가장 엄혹해 보이지만, 긴 시간에 비춰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의 경제위기도 한껏 부풀었다 사라질 거품일지 모른다. 아크로폴리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외치는 듯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낙관을 바탕으로, 곳곳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 아닐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리스 여행은, 찬란한 고대 유적도 유적이지만, 그보다 시간과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준 여정이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테네를 떠나 신타의 도시 델피에서 '신타 주고받기' 놀이도 하고, 크레타 섬에서 지중해의 낭만과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추구했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레타문명에 흠뻑 빠지면서 다시 호기심에 눈동자를 번득이는 여행자 모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콘솔라스 사장의 그 한마디, '이번 위기도 지나갈 거예요'라는 그 한마디였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진짜 봄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었다.

COMMISSIONERS 위원동정

• 신임 중재위원 위촉



2월 12일자로 서울제5중재부 장세창 위원(전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장)이 위촉됐다.
임기는 2017년 10월 12일까지이다.

• 법원 인사 등으로 일부 중재위원 사퇴

대법원의 2월 11일 및 22일자 법관 인사 등으로 인해 중재위원 직을 사퇴한 중재위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인사변동
서울제1중재부	김용관 부장	퇴직
서울제6중재부	이은신 부장	사퇴
광주중재부	이창한 부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제2중재부	강태훈 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제5중재부	홍이표 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제8중재부	김수일 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친지원장
대전중재부	양태경 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강원중재부	이주현 부장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충북중재부	방승만 부장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대전지법 부장판사
전북중재부	정재규 부장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남중재부	박민수 부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 부산지법 부장판사
제주중재부	허명욱 부장	제주지법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용상 위원장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박용상 위원장이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 위원장은 2월 16일(화) 법률소비자연맹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법률대상(인권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종원 성균관대 명예교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윤병국 미주한 인전국재단 명예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7명이 수상했다.

2016년도 제1차 예비 법조인 연수 진행

위원회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전국 16개 교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중재에 관한 특강 및 다양한 교육을 받고,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 체험을 했다. 연수 마지막날에는 '전재기사로 인한 피해와 포털사의 책임'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패널로 참가하는 모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모의 조정을 진행했다.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관련 MOU

위원회는 2월 24일 채널A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원회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 시 방송사 현장 견학을 지원하고, 채널A 임직원 대상의 언론분쟁과 관련 법무교육을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2월 2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과도 부산 지역 교직원 대상 '언론대응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업무협약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불호 발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불호(통권 18호)가 3월 1일 발간됐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불호'에는 '영하속 협상의 노하우', '키케로의 연설로 보는 수사학의 진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박용상 위원장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예비 법조인 모의 조정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불호(통권 18호)



드라마에 무단으로 사용된
신청인의 증명사진,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1

A 방송은 B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신청인의 항의로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A 방송은 B 드라마의 후속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세트장에 비치하여 반복적으로 재노출했고, 이에 신청인은 초상의 반복적인 노출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방송은 해당 사진이 드라마에 최초 사용된 경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외주 제작사의 소품 담당 협력 업체와의 소통 부족으로 해당 사진이 재사용되었다며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진 사용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삭제되지 않고 반복 사용된 데 따른 피해가 크다고 인정,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및 VOD 삭제와 더불어, 합의사항을 어기고 신청인의 사진을 다시 사용할 때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CCTV에 찍힌 범죄현장 근처의
음식점 노출, 손해배상 및
영상삭제로 조정성립

02

C 방송은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술집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웃 음식점 CCTV 영상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식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음식점 입구 등이 그대로 방송됨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C 방송은 신청인의 음식점이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동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보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매출 하락과 보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선의로 CCTV 영상을 제공했는데, 신청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등 자료제공자인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 및 영상 삭제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사용,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03

D 방송은 갱년기 증상의 개선을 위해 섭취하는 여성호르몬제가 오히려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한 여성이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삼키는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장면의 제품은 신청인이 판매하는 칼슘, 철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여성호르몬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방송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오해와 항의를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중재부는 신청인 제품을 모자이크 처리해 해당 장면만으로는 신청인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다수의 여성호르몬 제품을 구분하기 불가하다는 D 방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에 합의를 권유, 조정이 성립됐다.

공감블로그 속 『△언론-사람』 2월호 100자평

박생범 님

한비야 님과의 인터뷰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힘>을 읽고, 사자가 오즈의 마법사에게 용기라는 것을 얻으러 가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한 움큼의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재범 님

<기사삭제가 이루어지기까지> 글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현장 취재에서 편집 데스크까지 고심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을 역지사지로 떠올리게 되었으며, 반면 개인의 인격권 보호도 중요하기에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경석 님

<플랫폼의 진화와 새로운 뉴스 읽기> 글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뉴스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지형변화에 맞추어 언론중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언론-사람』 3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3월 18일(금)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2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신문, 잡지, 뉴스통신의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자체심의를 합니다.
- 후보자(출마 예정자)는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의 조치내용 :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 사실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권고 결정
- 후보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합니다.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